

01 교회소식

하나님께 축복받은 의사들

의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WCDN의 사역이 주목받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을 품는 온유한 마음에 덕을 겸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03 신앙상담

율법의 근본 정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 그 이유를 '의와 인과 신을 통해 살펴본다.'

04 간증

주의 능력이 생명의 꽃을 피우다

절망이 변해 감사가 된 최 희 집사와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싱가포르만민교회 황평평 선교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98호 2013년 9월 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의학과 영성으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WCDN

역대 WCDN 콘퍼런스 개최지

- 2004. 5 한국 서울
- 2005. 5 인도 첸나이
- 2006. 6 필리핀 세부
- 2007. 7 미국 마이애미
- 2008. 5 노르웨이 트롬하임
- 2009. 10 우크라이나 키예프
- 2010. 5 이탈리아 로마
- 2011. 6 호주 브리즈번
- 2012. 5 케냐 나이로비
- 2013. 6 멕시코 톨루카

지역별 담당자:

- 스칸디나비아: 에니스 아브라나 박사
- 러시아: 루이자 무라토바 박사
- 우크라이나: 올레나 헤일로 박사
- 불가리아: 류브카 탄체바 박사
- 미국: 알만도 피네다 박사
- 멕시코: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
- 한국: 김준성 박사
- 아르메니아: 바헤 브니아탄 박사
- 말레이시아: 다니엘 투라이야파 박사
- 싱가포르: 데이빗 위 박사
- 필리핀: 포르투나토 크리스토폴 박사
- 몰도바: 보리스 토퍼 박사
- 이탈리아: 마우로 아드라나 박사
- 이스라엘&중동: 다니엘 로젠 목사
- 인도: 폴 폰라지 박사
- 호주: 미카 쿠퍼 박사
- 케냐: 지포라 은구미 박사
- 인도네시아: 이삭 라훈듀이탄 박사
- 공공민주공화국: 봉강가 제마 박사

WCDN 세계 지부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은 '영성과 의학'을 주제로 매년 국제기독교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활발한 19개 지부 활동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 의사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 가고 있다(왼쪽부터 WCDN 이사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 메시지, 2013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린 제10회 국제기독교의학 콘퍼런스, 회장 채윤석 박사의 치료 사례 발표, 참석자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예능팀의 공연 사진).

“WCDN 사역은 우리 삶, 가족, 사역과 비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콘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매우 행복하며 만민중앙교회의 사역으로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대부분이 이재록 박사님의 신앙서적을 읽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박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말, 중남미 선교에 힘쓰고 있는 WCDN 멕시코 지부 디렉터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가 24개국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진 제10회 멕시코 국제기독교의학 콘퍼런스 이후 변화된 참석자들의 모습을 전해왔다.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의료인과 지식인들을 깨우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초교파 기독교의사 연합이다. 매년 각국에서 '영성과 의학' 콘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치료사례 발표를 통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해 왔다.

현재 한국에 본부(이사장 이재록 목사, 회장 채윤석 박사)를 둔 WCDN은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이스라엘과 중동, 케냐,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등 전 세계에 19개 지부를 두고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불가리아 지부에서는 내년에 개최될 제11회 WCDN 국제기독교의학 콘퍼런스를 앞두고 디렉터 류브카 탄체바 박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자를 모색하고, 적극적인 미디

어 홍보는 물론 최고의 시설에서 콘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인도 지부(디렉터 폴 폰라지 박사)에서는 무료 의료 캠프를 통해 주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웹뉴스매거진 'WCDN INDIA'를 발간해 결속력을 강화하며,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두바이 등 주변국 의사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고 있다. 뉴델리, 케랄라 주, 타밀라두 주, 트리치 등 인도 전역에서 진행해 온 지역 세미나가 오는 10월에 푸두체리 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케냐 지부(디렉터 지포라 은구미 박사)에서는 정기 모임은 물론 관계자들이 매주 하루 금식하며 WCDN 사역을 통해 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조직 위원을 보강하고 아프리카 의사들의 결속을 위해 내년 4월 자체 콘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지부에서는 정기 모임과 학술 세미나, 기도와 교제를 통해 WCDN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강한 힘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오늘날 죄악이 관영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WCDN 사역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족히 2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큰 권능을 보여 주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온유함이 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며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국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과연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 주실까요?

1.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

사전에 보면 ‘온유’에 대해 ‘인품이 온화하고 순함, 부드럽고 유순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이라 정의합니다. 세상에서는 성품이 순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거나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또 소극적이고 유약한 사람이나 친절하게 남의 얘기를 들어 주면 ‘온유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미움

이 있고 불편하여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화가 나지만 꾀꾀 눌러 참고, 따져 묻고 싶지만 부드럽게 대하면 ‘착하다. 온유하다.’ 말하지요.

그러나 겉모습만 그럴 듯하게 온유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어떤 불편함도, 싫어함도 없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 줄 수 있어야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시지요.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상대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되어 주는 마음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고, 내 성격과 취향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품습니다.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매사에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주는 포근한 마음이지요. 이런 온유한 마음은 ‘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숨에 단단한 물체나 돌맹이를 던지면 소리 나지 않고 포근히 감싸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은 숨같이 포근하고 따뜻하여 모든 사람을 품어 주는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찌르는 사람도 억지로나 아닌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런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덕’을 겸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온유’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온유함을 온전케 하는 덕을 갖추어야

‘덕’이란 사전에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깊고 인간적인 성품’이라 설명합니다.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도리에 합당히 행합니다. 반듯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하지요. 덕이 없으면 온유함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마음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지만 행동이 거칠고 실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깃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남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어떤 사람

은 말이 많고, 농담을 잘하여 신뢰가 떨어지지요. 온유함이 마음에 이룬 내면적인 것이라면 덕은 외면적인 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저분하고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주고 지나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덕을 갖춘 온유함이라야 마음과 함께 말이나 행동, 모습도 사람들에게 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사람을 치리함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여 상대를 품는 것뿐만 아니라, 꽃향기에 나비와 벌이 모여들듯 많은 사람이 그 선과 사랑에 감동을 얻고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거친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도 뽑아내야지요.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거름도 주면서 개간하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판단, 정죄, 교만 등 비진리, 육신의 생각을 벗어 버려야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지요.

3. 온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말씀했습니다. 기업이란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 또는 기초가 되는 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 세상에 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만이지. 개인적으로 땅을 꼭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충성한 것만큼 개개인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교회만 왔다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충성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애통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충성하였는데 똑같은 집에,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하나

님을 어찌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덕을 갖춰 온유함을 이룬 사람이 영혼 구원과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했으니 하늘나라에서 넓은 땅을 주어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주시지요. 온유하여 많은 사람을 품고 천국에 이르게 하였으니, 천국에서도 그들이 감사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방문할 텐데 많은 사람을 맞을 접터도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 존경하고 깃들이는 것이 천국에서는 큰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며 섬기고 희생하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의 권세를 누리며, 큰 땅을 소유하게 되지요. 이렇게 주어진 넓은 땅에 이 세상에서 충성과 봉사로, 헌금으로 드러진 천국 집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지휘 아래 멋지고 아름다운 내 집이 지어집니다. 이 넓은 땅에 정원과 호수, 수영장 등 각종 시설물을 짓게 되지요.

한 번 받은 천국 땅과 상급은 천국에서 더 이상 늘릴 수도, 나누어 줄 수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랑과 덕으로 많은 사람을 품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되어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에 덕을 겸하여 많은 영혼을 품음으로 천국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의와 인과 신’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Q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엄히 책망하셨는데요. 십일조를 드리며 율법을 지킨 그들에게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작은 채소의 잎사귀와 줄기에까지 십일조를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기 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과시하고자 겉으로만 행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연구하여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 즉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 차례나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며 이들을 소경, 소경된 인도자, 뱀, 독사의 새끼들 혹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히 꾸짖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에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의 (義) ‘옳은 것을 좇는 마음’

세상에는 법, 도덕이나 사회규범 등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공의라는 잣대에 비추어 옳은 편을 따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취 볼 때 겉보기에 참으로 의로워 보였습니다.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실속을 차릴까’ 궁리했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데에만 급급했지요. 즉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했고, 금식할 때면 사람에게 알리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정작 옳은 것을 좇는 마음 곧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던 그렇지 않든,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을 좇지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에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 (仁) ‘사랑과 덕’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소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지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과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전혀 없었지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랑과 덕이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 하시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초월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음에 ‘인(仁)’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웃에게 선만 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며 사랑과 덕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신 (信) ‘하나님께 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서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참으로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날날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었다면 선행을 상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하십니다(마 11:12). 세상 것을 끊고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도 충성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 자신의 처소가 지어지고 더 많은 상급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즐겁게 지켜 행할 때 영육 간에 축복은 물론 불가능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9월 주보 프로그램 안내
2013.9.8~9.14
September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선
- 천국 4-8
- 중심
- 민음의 분량 6-10
- 참새기 강해 74-78
- 요한일서 강해 22-26
- 사랑 1-4

GCN TV 설교

- 육과 영 10-13 (이수진 목사)
- 비교하는 마음 (이미영 목사)
- 테스트 (이미경 목사)
- 지옥 (이희선 목사)
- 민음의 분량 2 (천우진 전도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1-12 (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4-9
- GCN 간중스페셜 12-17
- 만민의 간중 3-6, 12

해외성회 시리즈

- 뉴욕연합대성회 1
- 독일연합대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 (3) 67-72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6-21
- 만민 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판자촌에 찾아와 참 행복을 주신 하나님 사랑



최 희 집사 (1대대 5교구)

대학 졸업 후 1998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게다가 무리한 카드 대출로 큰 부채를 저탄광촌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신장을 팔려고 하다가 제 신체가 너무 한탄스러워 자살을 세 번이나 시도하였지요.

2002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에 서울에 있는 판자촌에 정착했습니다. 그때 나이 29세. 무직 상태에서 술과 담배, 가난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간기능 악화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판자촌에서의 삶 또한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2006년, 제 인생이 반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박순옥 집사를 통해 알게 된 만민중앙교회에 9월 10일, 주일 예배 시 등록한 것입니다. 예배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진실 자체였고, 그 순수하신 모습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지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달쯤 후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

는 길이었 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와 하염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 주면 믿겠다.'며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저를 손꼽아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복받쳐 오르고 지난날 잘못 살아 온 것들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물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고 매일 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다니엘절야 기도회

에 참석해 기도생활을 하니 감사와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대형건물 소방설계 업체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업도 갖게 됐지요. 2007년 4월에는 사랑하는 박순옥 집사와 결혼했습니다. 신혼 방은 비록 5평 남짓 쥐가 나오는 판자집이었지만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니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 1월부터는 보힘 설계사로 전업해 정도와 성실을 모두 동료들과 화평을 이루기 힘썼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헌금을 즐겨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보험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집에 찾아오신 꿈을 꾸 후, 축복이 쏟아져 판자집에서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지요. 저는 교구 총무구역장으로, 2-1남선교회 기관장과 아동주일학교 부장으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힘들어하거나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저의 간증과 함께 용기를 북돋워 주며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제 삶에 빛으로 오셔서 참 행복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요. 아내 박순옥 집사도 구역장으로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예능위원회 소속 진주중앙단으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들 유겸이는 만민선교원에 다니며 주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있지요. 판자촌 삶에서 영육 간에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황핑핑 선교사 (싱가포르만민교회)

“싱가포르 만민교회에도 권능의 역사가 넘쳐요”

2007년, 싱가포르 극동방송 프로듀서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위마리 목사님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저서 『믿음의 분량』 책자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후 저는 당회장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비롯해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와 『천국』(상·하), 『지옥』 등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이 저서들을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만민중앙교회에서 싱가포르 선교사로 파송돼 2012년 9월, 개척예배를 드렸지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함께 생방송으로 각종 예배를 드리며, 매일 밤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면서 영적 성장과 더불어 부흥하고 있지요.

즈즈 자매(23)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놀라운 치료를 체험했습니다. 척추 끝이 한쪽으로 기울어 조금만 앉아 있어도 통증이 심했는데, 척추 뼈가 곧

게 펴져 통증이 사라지고, 자세가 바르게 됐지요. 쉬타이메이 성도(39)는 성결의 복음을 듣고 앙숙이던 동료와 화해했으며, 유키 성도(42)는 당회장님의 저서 『지옥』을 읽은 후 상대를 용서하고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또한 위성은 아동(4)은 심각한 요로감염과 패혈증을 앓았으나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치료됐지요. 이 사례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WCDN 제10회 멕시코 국제기독교의학 콘퍼런스 때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의사 앞에서 권능의 치유 사례로 발표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싱가포르만민교회는 올해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당회장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함으로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10명, 말레이시아 국적 9명, 중국 국적 1명 등 총 20명이었지요. 하계수련회 첫날, 당회장님 기도로 먹장구름이 물러가고 쏟아지던 비가 멈추며, 맑은 하늘에 별까지 보이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목도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지요.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체험케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황핑핑 선교사와 성도들의 행복한 한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충청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637-0271, 010-7733-132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8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